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연료 반입 광주·나주시 합의점 찾는다

위해성 여부 환경영향 조사키로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양 지자체가 위해성 여부를 밝히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광주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양 지자체가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타지역의 생활폐기물 연료를 반입한다"는 주민 반발을 사고 있고, 타 지역 단체장이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광주시의 입장에 불만을 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8일 광주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역내 처리하는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단체장이 다른 지역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강 시장이 주장하는 '광주시 쓰레기 나주시 반입 반대'는 나주시 산포면의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 지난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발전소는 생활폐기물을 가공해 만들어진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한 뒤 혁신도시에 열원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주, 순천 등 인근 지역에서 SRF 공급량이 부족하자 광주시 양과동 전처리시설에서 생산 중인 SRF를 하루 310t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일부 나주 주민들이 "광주시 SRF는 받을 수 없으며 가스연료만 사용해 발전소를 가동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날 강인규 시장이 광주시장 앞 1인 시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나주 주민들은 환경 위해 우려를 거둬하며 인근 지역의 SRF 반입마저 반대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난방공사는 이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애초 "성형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았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에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 강인규 나주시장이 18일 광주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광주시와 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성형 폐기물은 수분 함량 25% 이하로 쪼이고, 압축한 형태를 말한다. 애초 열병합발전소는 성형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했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비성형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비성형 폐기물 반입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시위에 당혹해 하면서도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환경영향 조사를 해 대책을 만들자"면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나서서 관여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나주시에서 받을 수 없으니 조치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모델이었던 나주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국민통합’ 정치·경제 인사 사면복권 되나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화합 차원 결단 필요성

“법 근간 흔들지 않는 범위 내 사회복귀 길 터줘야” 목소리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의 시기와 폭, 대상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특별 사면은 연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배제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 경우, 내년 음력 설 이전에 첫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시국 사범과 정치·경제인들이 포함된다면 내년 2월 음력 설을 기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회 전반의 여론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달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용산참사 시위,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보수 정부 시절 정치적 상황에 얽혀 사면처치된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시기와 대상에 대해 "아무래도 시간적 부분을 감안한다면 연초나 음력 설 연휴가 될 수 있다"며 "사면 대상은 민생 중심이 될 것이며, 시국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을 중심

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부 시국 사건 관련자들이 특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사면'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및 경제 사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 대통령에게 정몽주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복권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여기에 한영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동채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도 '국민통합'이라는 동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기를 마친 정치·경제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면은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교통사범 위주를 벗어나 국민대통합의 온기를 담을 수 있는 사면·복권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급물살'

윤시장 제안에 전남도 긍정 화답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방안 검토를 시사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발언에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권한대행은 18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해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민간공항 이전 로드맵을 논의하고,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전남지역 이전 후보지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서재팰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와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과 무안공항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지난 12일 광주시 확대간부회

의에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전향적인 판단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광주시장의 진일보한 판단이 선연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시·도 상생 차원의 적극적인 이전 로드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군 공항 이전은 전남의 이전 후보지에 부담되는 만큼 상대(이전 후보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해주면 토론회장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공항 통합 논의를 재촉하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후보 지자체에 대한 광주시의 충분한 설득이 있으면 논의에도 응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양 시·도 간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8세기 독일 왕실 보물 광주 왔다

국립광주박물관 오늘부터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

화려했던 18세기 독일 왕실의 보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관련 기사 16면〉 국립광주박물관은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을 19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드레스덴박물관 연합을 대표하는 그란볼트박물관, 무기박물관, 도자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엄선한 13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크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강건왕 아우구스투스(Augustus the Strong, 1670~1733)'가 제작하고 수집한 예술품들이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되며 전시 기간 중 다양한 강의와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생김새를 본뜬 태양 가면'(1709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HNT 하나투어

추천여행 ①
캄보디아/앙코르왓

추천여행 ②
베트남/하노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점 062) 228-1199

무안공항출발 해외여행!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하나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 비엠펙항공(VJ항공)

🍽️ 치맥야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 불고기, 라비올레스토랑, 노니보쌈정식)

하나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 스카이앙코르항공

🍽️ 앙코르를 특식이 투어, 특식 3회(쌈방정식, 디너뷔페, 수끼)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altravel.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음.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altravel.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유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명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상품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ltravel.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2 ● 여행 자제 3 ● 철수 권고 4 ●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